



| 2026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Lined area for writing prayer requests.



HAPPY NEW YEAR

2026 설 가정에배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초대

인도자

다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다같이

-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대표 기도

말은이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 앞에 지치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를 주고받은 순간
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무너진 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요셉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무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과 관계 속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리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깊은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날 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창세기 41장 38절

다같이

38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말씀 나눔

말은이

우리는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 이방 나라의 통치자 앞에서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특별한 능력을 뽐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흐르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타인의 눈에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성껏 살아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노예의 신분에서도 원망의 언어 대신 성실과 긍휼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위기의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재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족의 서툰 고백을 경청해 줄 때, 지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일 때,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 애쓸 때, 성령의 숨결은 우리 거실과 식탁 위에 임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요셉처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복을 누리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이 이웃과 피조세계로 흘러가 척박한 세상을 적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가정이 걷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길 것입니다. 그 숨결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시간

덕담과 기도제목 나누기

각자 돌아가면서

마침기도

가족대표